

마다가스카르 국가신용도 평가리포트

2010. 11.

I. 일반개황	2
II. 경제동향	3
III. 정치·사회동향	9
IV. 국제신인도	12
V. 종합의견	15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

I. 일반개황

면적	592천km ²	G D P	85 억 달러
인구	19.63 백만명	1 인 당 G D P	434 달러
정치체제	공화제	통화단위	Ariary (AR)
대외정책	친서방 자유주의	환율(달러당)	1,956.21

□ 아프리카 남동부에 위치한 마다가스카르는 한반도의 6배에 달하는 넓은 국토면적과 약 2,000만 명의 인구, 니켈, 크롬, 티타늄 및 인근 해역의 유전 등 향후 경제성장의 원동력이 될 풍부한 천연자원을 보유하고 있음.

□ 독특한 자연경관과 광활하게 펼쳐진 열대 해안, 지리적 독립성으로 인해 발달한 특이 생물군 등 천혜의 관광자원을 갖춘 국가임.

□ 국제사회로부터 원조지원 및 외국인투자 확대에 힘입어 2004년 이후 평균 5% 대의 경제성장률을 달성하였으나, 세계경기침체와 2009년 3월의 쿠데타, 과도정부 수립 등 일련의 정치적인 혼란의 영향으로 경제성장이 둔화되었음.

II. 경제동향

1. 국내경제

<표 1> 주요 국내경제 지표

단위: %

구 분	2006	2007	2008	2009 ^e	2010 ^f
경제성장률	4.9	5.6	7.0	-1.0	1.5
재정수지 / GDP	-4.4	-4.7	-4.1	-6.1	-7.3
소비자물가상승률	10.8	10.3	9.2	9.0	8.1

자료: IMF, EIU.

□ 광산업 회복으로 2010년 플러스 경제성장률 전환

- 2004~07년 마다가스카르 경제는 농업 및 섬유산업의 호조, 관광산업의 건실한 성장, 석유 및 광산업에 대한 외국인투자 확대 등에 힘입어 평균 5%대의 양호한 경제성장을 시현하였으며, 2008년에는 쌀생산량 증가와 관광산업의 호조세로 7%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하였음.
- 2009년에는 세계경기침체로 인한 수출의 감소 및 관광업의 부진, 쿠데타 발생 등 정치적인 혼란으로 인한 경제활동의 타격 등으로 -1.0%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하였으나, 타로아그나로(Taloagnaro)의 티타늄 철광석 (Ilmenite) 개발 프로젝트 등 주요 자원개발 프로젝트를 통한 자원 생산량 증가로 2010년에는 1.5%의 플러스 경제성장률로 돌아설 것으로 예상됨.
- 2011년에는 합법정부가 들어서면서 국제 원조 및 투자가 재개될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라 4%까지 성장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됨.

□ 만성적인 재정수지 적자기조 지속

- 재정수지는 정부의 취약한 조세징수 기반과 부실한 재정관리, 수출가공 기업에 대한 과도한 조세혜택에 따른 세입 부족 등으로 인해 지출이 수입을 상회하는 추세가 지속되고 있어 만성적 적자기조에서 탈피하지 못하고 있음.

- 2008년까지 평균 4%대를 유지하던 GDP 대비 재정수지 적자규모는 정부의 지속적인 지출관리에도 불구하고 세계경기침체와 정치적인 혼란 지속에 따른 경제활동의 타격으로 세수가 크게 감소하며 2009년에는 6.1%로 확대되었음.
- 2010년에는 경기가 다시 회복되며 세수가 증가한 것으로 보이지만, 내년 총선 및 대선 등으로 재정지출이 증가하며 GDP 대비 재정수지 적자는 7%대를 기록할 것으로 보임. 2011년 합법정부가 구성되어 원조가 재개 되면, GDP 대비 재정수지 적자는 4.4% 수준으로 축소될 전망이다.

□ 2010년 소비자물가상승률은 한 자릿수 유지

- 2005~07년 소비자물가는 국제유가 상승, 수도, 전기 요금 등 공공서비스의 요금 인상, 자국통화인 에리아리의 통화 가치 하락에 따른 수입 생필품 가격 상승 등으로 평균 10%대의 높은 상승률을 기록하며 마다가스카르 경제에 커다란 불안요인으로 작용해왔음.
- 이 같은 현상이 지속되자, 정부는 물가상승률을 한 자릿수 이내로 안정 시키겠다는 목표 하에 중앙은행 총재를 새로이 임명하고 유동성 관리 등 강력한 물가안정 정책을 추진해왔으며, 정책시행의 결과 2008년 물가상승률은 소폭 하락한 9.2%를 기록함.
- 2009년 풍년으로 주식인 쌀 가격이 하락하면서 2009년 소비자물가는 9.0% 상승하는데 그쳤으며, 2010년에는 에리아리화의 가치가 연말까지 안정적인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수입인플레이션 압박이 줄어들어 소비자물가상승률이 8.1% 수준에 머무를 전망이다.

2. 경제구조·정책

가. 구조적 취약성

□ 외부충격에 취약한 1차 산업 중심의 경제구조

- 마다가스카르는 농업이 총 GDP의 27%(2008년 기준)를 차지하는 1차 산업 중심의 경제구조를 지니고 있음. 주요 농산물은 주식인 쌀을 비롯하여 바닐라, 커피, 정향나무, 목화 등이며, 참새우(Prawn) 및 참치 조업을 중심으로 한 수산업도 주요 수출산업으로 성장하고 있음.
- 한편, 쌀 생산의 경우 부족한 관개시설 및 낙후된 농법으로 인해 생산량이 저조하여 상당 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음. 또한 상품작물인 바닐라와 커피 등은 사이클론으로 인한 피해강도가 연간 작황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국제 시세에도 민감하여 외부 충격에 취약한 구조를 지니고 있음. 도로, 항만, 전력 부문의 인프라 미비로 말미암아 농·수산 제품의 운송 및 보관에도 곤란을 겪고 있는 실정임.

□ 취약한 경제 인프라

- 경제 인프라 또한 도로의 15%만이 포장되어 있으며, 철도 운행도 일부 지역으로 제한되어 있음. 전기도 수도인 안타나나리보(Antananarivo)와 대도시 일부지역에만 제공되는 등 불안정한 실정이며, 상하수도 시설도 미흡하여 마다가스카르 인구의 45%만이 안전한 식수를 제공받고 있음. 이와 같이 열악한 인프라는 광물자원 개발, 관광산업, 제조업 및 고부가 가치 농업의 성장을 저해하고 있음.
- 2007년 이후 Madagascar Action Plan (MAP) 등을 통해 도로신설 및 개보수, 교량신설 등을 비롯한 사회 인프라 개발 투자와 민영화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왔지만, 최근의 글로벌 금융위기 및 정치적인 혼란으로 국영전력회사인 Jirama의 민영화 일정이 연기되는 등 전반적인 추진일정이 다소 지연되고 있음.

나. 성장 잠재력

□ 풍부한 에너지 자원 및 광물자원

- 마다가스카르는 최근 확인된 석유를 비롯하여 니켈, 크롬, 보크사이트, 석탄 및 보석류 등 각종 광물자원이 풍부한 자원부국으로 성장가능성이 매우 높은 국가로 평가받고 있음. 자원개발의 경쟁이 치열한 여타 아프리카 지역에 밀려 소외되었던 동남 아프리카 지역은 최근 동 아프리카해

심해유전, 내륙 광물자원 개발 잠재력 등으로 각광받고 있으며, 그 중 마다가스카르는 탄자니아와 더불어 자원 투자 유망국으로 부상하고 있음.

- 현재 진행 중인 대표적인 프로젝트로 암바토비 니켈광산 개발, 타로아그나로 티타늄 철광석 개발, 크라오마 광업공사의 보크사이트 채굴 재개발 들 수 있으며, 석유의 경우 마다가스카르 서남해를 위주로 광구를 나누어 외국 메이저 석유업체가 석유 시추작업을 진행 중임.
- 다만, 최근 마다가스카르는 도로, 전력, 항만 등의 기초 산업인프라 미비와 2009년 3월 쿠데타 발생 등 정치적인 혼란의 지속 등으로 인해 주요 자원개발 프로젝트 진행에 다소 난항을 겪고 있으며, 본격적인 상용화에 단계에 이르기까지는 다소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

□ 높은 성장잠재력을 보유한 관광산업

- 마다가스카르는 독특한 자연경관과 광활하게 펼쳐진 열대 해안, 지리적 독립성으로 인해 발달한 특이 생물군 등 천혜의 관광자원을 갖춘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항공, 호텔 등의 기본 관광 인프라 미비로 인해 관광산업이 모리셔스, 세이셸과 같은 인근 도서국에 버금가는 성장을 누리지 못하고 있음.
- 정부는 2003년부터 관광산업을 주요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항공편을 확충하고 철도, 도로 등의 관광 인프라를 구축하는 정책을 적극 추진해 왔음. 최근에는 2012년까지 연간 50만 명의 관광객을 유치하고자 공항 신설 등 관광 인프라 개선에 박차를 가하고 있음.

□ 수산업 성장 지속

- 5,800Km의 해안선을 지닌 마다가스카르는 어족 자원이 매우 풍부하여 수산업의 성장 잠재력이 매우 높은 것으로 평가받고 있음. 유럽지역의 고급식재료에 대한 수요로 인해 참새우(Prawn), 참치 등을 유럽에 꾸준히 수출하고 있으며, 정부의 지원 아래 양식업 또한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음.

다. 정책성과

□ 2002년 정치위기 극복 이후 강력한 경제개혁 추진

- 마다가스카르는 2002년 정치위기를 극복한 이래 일자리 창출, 경제 인프라 구축, 보건 및 의료 개혁, 민간경제 육성 등을 주요 골자로 한 강력한 경제 개혁을 추진해왔음.
- IMF 및 World Bank의 자문을 받아 PRGF(Poverty Reduction and Growth Facility) 프로그램을 충실히 이행해 왔으며, 빈곤 해소, 자유 시장 경제 확대, 외국인투자 유치, 민영화 추진 등을 통해 양호한 경제성장, 물가 안정세, FDI 확대 등의 가시적 성과를 창출해 왔음.
- 최근 쿠데타 등 일련의 정치사태로 인해 개혁이 지연되고 있지만, 현재의 과도정부도 경제, 사회발전 및 국가번영에 필요한 프로젝트의 중요성에 인식하고 있는 등 개혁의 전면적인 중단은 없을 것으로 보이며, 정치적인 안정을 이룩한 이후 동국의 장기적인 경제성장세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

□ MAP(Madagascar Action Plan 2007-2012)의 추진

- 라바로마나나 전 대통령은 2002년 취임 이후 경제개발 프로그램인 MAP을 수립하며 국제사회로부터의 대규모 원조를 이끌어냈으며, 이를 2006년 재선 성공의 기반으로 활용하기도 하였음.
- MAP는 2012년까지 민간경제 육성 및 일자리 창출을 통해 경제성장률을 10%로 끌어올리고, 1인당 GDP를 476 달러로 향상시킴과 동시에 절대빈곤층 비율을 현 85%에서 50% 수준까지 낮춘다는 내용을 담고 있음.
- 그러나 MAP의 대부분은 구체적인 실행 계획이 없는 목표들로만 채워져 있어, EU 및 서방 원조국들은 그동안 추가 원조의 전제조건으로 구체적인 계획 수립을 수차례에 걸쳐 요구해왔음.

3. 대외거래

<표 2>

주요 대외거래 지표

단위: 백만 달러, %

구 분	2006	2007	2008	2009 ^e	2010 ^f
경 상 수 지	-552	-1,066	-2,194	-2,153	-1,178
경 상 수 지 / G D P	-10.0	-14.4	-23.8	-20.9	-10.0
상 품 수 지	-551	-1,046	-1,981	-1,241	-546
수 출	964	1,290	1,239	1,037	1,412
수 입	1,515	2,335	3,219	2,278	1,958
외 환 보 유 액	583	847	982	1,136	1,200
총 외 채 잔 액	1,395	1,727	2,958	4,201	4,810
총 외 채 잔 액 / GDP	25.3	23.5	31.4	40.7	40.8
D S R	2.6	3.2	8.0	3.2	

자료: IMF, EIU.

□ 상품수지 및 경상수지, 만성적 적자기조 지속

- 상품수지 및 경상수지는 취약한 제조업 기반에 따른 높은 수입 의존도 (석유, 쌀, 공산품 등) 등으로 인해 만성적인 적자기조를 지속하고 있음. 특히, 최근에는 대규모 자원개발 프로젝트 추진으로 인해 자본재의 수입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2008년 경상수지 적자규모가 GDP 대비 23.8% 수준인 22억 달러로 크게 확대되었음.
- 2009년에는 세계경기침체의 영향으로 수출이 감소하였으나, 석유 및 식료품 가격의 하락으로 수입규모의 감소가 두드러져 상품수지 적자는 전년 대비 37% 감소한 12억 달러를 기록함.
- 2010년에는 광산개발과 관련된 자본재 수입이 소폭 증가하였으나, 자원 개발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의류부문이 회복되면서 수출이 전년 대비 30%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전반적인 상품수지 적자는 전년보다

축소될 전망이다. 또한 관광업이 회복되면서 서비스수지 적자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 **외환보유액은 꾸준한 증가세**

- 광물 및 에너지 자원개발과 관련된 해외투자자본의 유입 확대에 힘입어 2009년 말 외환보유액은 전년 대비 15.7% 증가한 11.4억 달러를 기록하며 견고한 증가세를 보여왔음.
- 2010년에도 관광수입 증가, 국제원조 재개 등의 영향으로 증가세가 지속될 전망이다.

□ **HIPC Initiative Completion Point 도달로 외채구조는 개선**

- 총외채규모는 2004년까지만 해도 GDP의 80%를 차지하는 등 외채부담이 심각하였으나, 2001년 시작된 HIPC(Heavily Indebted Poor Countries) 프로그램을 성실히 이행하며 2005년 Completion Point에 도달, 19억 달러의 대규모 채무를 전액 탕감 받아 GDP 대비 외채비중이 2007년에는 23.5%까지 개선되었음.
- DSR도 외채탕감 및 서방 선진국으로부터의 무상원조 확대에 힘입어 한 자릿 수의 양호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III. 정치·사회동향

1. 정치안정 및 소요사태

□ **군부 쿠데타 발생으로 2009년 3월 라졸리나 과도정부 수립**

- 마다가스카르 유제품 독점기업인 TIKO의 소유주이자 수도 안타나나리보의 시장이었던 마크 라발로마나나(Marc Ravalomanana)는 2002년 대통령 당선이후 2006년 재선에 성공하였음.
- 2009년 1월, 안타나나리보 시장 재임(2007.12~2009.2)중 라발로마나나 정부에 대한 강한 비판 성향을 보여온 안드리 라졸리나(Andry Rajoelina)는 정부가 라트시라카(Ratsiraka) 전 대통령과의 인터뷰를 방

영했다는 이유로 라졸리나 소유의 Viva TV 방송국을 폐쇄하자 반정부 시위를 주도하였으며, 결국 100명 이상의 사상자가 발생하는 유혈사태로 확대되기에 이르렀음.

- 2009년 2월중 UN 등의 중재 아래 반정부 폭력사태가 해결되는 양상을 보였으나, 3월초 라발로마나나 대통령이 반정부 시위를 진압할 것을 천명하며 보안군을 파견, 라졸리나의 거처를 습격하였음. 이에 군부의 개입으로 동사태가 본격적인 쿠데타로 비화, 라발로마나나의 축출로 이어졌으며, 2009년 3월 21일 과도정부가 수립되며 라졸리나가 대통령으로 취임하였음.

□ 쿠데타 이후 권력분점을 위한 회담 지속

- 쿠데타 이후 전임 대통령 지지자들의 과도정부 반대시위(2009년 3월)가 발생하는 등 정치적인 혼란이 지속되고 있음. 더불어 IMF 및 EU가 원조 지원을 동결하고 남부아프리카개발공동체(Southern African Development Community: SADC)와 아프리카연합(African Union: AU)이 마다가스카르의 회원자격을 정지시키는 등 국제사회의 압박도 강화되고 있음.

- 주요 반대정당 및 아프리카연합의 과도정부내 주요 요직에 대한 배분 및 공동정부 운영 요청 등이 거세지자, 라졸리나는 8월과 11월 각각 모잠비크 수도인 마푸토(Maputo)와 에티오피아의 수도 아디스 아바바(Addis Ababa)에서 전직 대통령 3인인 디디에르 라트시라카(Didier Ratsiraka, 1975~93 및 1997~2001 재임), 알베르트 자피(Albert Zafy, 1993~1996 재임), 라발로마나나(2002~2009.3 재임)와 공동정부 운영에 대해 합의하였으며, 2009년 10월 유진 망갈라자(Eugene Mangalaza) 총리를 공동정부 총리로 임명하였음.

- 그러나 불과 2개월만에 망갈라자 총리를 경질하는 등 라졸리나는 마푸토와 아디스 아바바에서 합의된 사안을 실질적으로 파기하였음.

□ 국제원조 중단 압박으로 내년 중 대선 실시될 전망

- 2010년 8월 라졸리나 측과 83개의 소수정당이 정국 혼란을 막기 위한 협상을 벌였으며, 이를 통해 금년 11월 17일에는 개헌 국민투표를, 내년 3월과 5월에는 각각 총선 및 대선을 실시하는 방안을 도출하였음.

- 개헌이 이루어지면 라졸리나 과도정부 대통령은 권력을 중앙화시킬 수 있을 뿐 아니라 정치적 정당성을 얻게 되기 때문에 주택, 식량 보조금과 대규모 건설 프로젝트 시행 등의 선심성 공약을 내세우며 개헌 찬성표를 호소하고 있음.
- 정치적 불안정으로 인한 국제원조 중단은 마다가스카르 재정수입에 커다란 압박이 되고 있고, 미국의 마다가스카르에 대한 특혜 폐지 역시 의류부문 수출에 타격을 미치고 있어, 내년 중에는 총선 및 대선을 통해 합법정부가 구성될 것으로 전망됨.

2. 사회안정

□ 농촌지역의 절대 빈곤상황 지속

- 국민의 70% 이상이 거주하고 있는 농촌지역의 빈곤문제는 동국의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그동안 라발로마나나 전 정부가 추진해온 경제정책은 수도인 안타나나리보와 수출가공지역에 집중되어, 농촌지역의 빈곤문제는 악화되기만 하였음.
- 이 같은 빈곤상황이 악화되자, 최근 정부는 절대 빈곤층의 비율을 현 85%에서 2012년 50% 이하로 낮추겠다는 목표 아래 농촌지역의 인프라 개선 및 일자리 창출에 주력하고 있으나, 가시적인 성과로 이어지기까지는 충분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분석됨.

□ 다양한 종족으로 형성된 강한 국가 정체성

- 마다가스카르의 인구는 말레이·인도네시아계의 20여개 종족, 아프리카 대륙에서 건너온 아프리카 및 이슬람계로 이루어져 있으며, 그 중에서 메리나, 베즈미사라카, 베칠레오 3개 종족이 전체 인구의 절반가량을 차지하고 있음.
- 그 중 수도인 안타나나리보를 비롯한 고산지대를 중심으로 거주중인 메리나족은 라발로마나나 전 대통령의 출신 계통으로, 최근 대부분의 경제 발전 혜택이 이 종족에 집중되고 있어 사회적 불만이 고조되고 있음.

- 그러나 다양한 종족 구성에도 불구하고 아프리카 대륙과 격리되어 자신들만의 독특한 문화를 이루어낸 마다가스카르 국민들은 전반적으로 여타 어느 국가 대비 강한 국가 정체성을 지니고 있어, 향후 종족 간의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은 매우 낮은 것으로 평가됨.

3. 국제관계

□ 국제원조를 지속적으로 유치하였으나, 일련의 정치사태로 경색

- 라발로마나나 전 대통령의 친서방 자유화 정책기조에 따라 미국, 독일 및 과거 지배국이었던 프랑스 등 여타 서방 국가들과의 협력관계를 강화하여 왔으며, 또한 World Bank, IMF 등의 국제기구의 요구에도 착실히 부응하여 왔음.
- 이러한 협력관계를 바탕으로 마다가스카르는 2006년 7월 IMF로부터 8,100만 달러의 PRGF 금융지원, 2008년 EU로부터 1차 산업 인프라 개선을 위한 8.7억 달러 규모의 원조지원, 2008년 미국 Millenium Challenge Corporation(MCC)으로부터의 1.1억 달러 원조지원 약속 등 국제사회로부터 원조 지원을 이끌어내는데 성공하였음.
- 그러나, 쿠데타 발생, 과도정부 수립 및 공동정부 구성에 대한 합의 파기 등 최근 일련의 정치사태로 인해 현재 EU, IMF 등으로부터의 원조지원이 동결된 상황임.

IV. 국제신인도

1. 주요기관별 신용도 평가순위

□ 주요 기관별 신용도 평가순위

- OECD는 마다가스카르에 대해 6등급을 부여하고 있으며, 3대 신용평가사는 평가등급을 부여하지 않고 있음.

기 관	종 전 등 급	현 행 등 급
OECD	6등급 (2009. 10)	6등급 (2010. 10)
ICRG	118/140 (2010. 1)	120/140 (2010. 9)
Euromoney	173/186 (2010. 3)	132/185 (2010. 9)
I.I.	142/178 (2009. 9)	154/178 (2010. 9)

2. 외채상환태도

□ 2005년 HIPC 프로그램에 따른 채무 재조정

○ 2001년 HIPC Initiative에 따른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개시한 이래 2003년 1억 9천만 달러, 2004년 1억 7천만 달러의 채무를 탕감 받는 등 외채 부담의 상당 부분을 해소함. 이후 IMF, World Bank의 경제개혁 프로그램을 착실히 이행하여 2005년 HIPC Completion Point에 도달, 총 19억 달러(2005년말 기준 당시 현가 8.4억 달러*)에 이르는 외채가 탕감되었음.

- 외채탕감 현가금액 8.4억 달러 중 IMF, 세계은행 등 개발금융기관 3.6억 달러, 파리클럽분 3.9억 달러, 기타금융기관 등 0.9억 달러 차지

□ 양호한 외채상환태도

○ 2010년 6월 말 기준으로 OECD 회원국 ECA 앞 단기외채에 대한 연체 실적은 없고, 중장기외채 연체가 발생하고 있으나 주변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 국가들과 비교하면 양호한 수준임.

- 단기외채: 총지원잔액 3,280만 달러(연체없음)

- 중장기외채: 총지원잔액 3억 1,760만 달러(연체잔액 11.3%, 3,590만 달러)

V. 종합의견

- 마다가스카르는 정부의 경제개혁 추진 및 국제사회로부터의 원조 등에 힘입어 2004년 이후 연평균 5%대의 양호한 경제성장을 달성하였음. 2009년에는 세계경기침체로 인한 수출의 감소 및 관광업의 부진, 쿠데타 발생 등 정치적인 혼란으로 인한 경제활동의 타격 등으로 -1.0%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하였으나, 2010년에는 자원 생산량 증가로 1.5%의 플러스 경제성장률로 돌아설 것으로 보임.
- 광물 및 에너지 자원개발과 관련된 해외투자자본의 유입 확대에 힘입어 외환보유액은 견고한 증가세를 보여왔으며, HIPC Initiative 프로그램의 성실한 이행으로 2005년 Completion Point에 도달하여 대규모의 외채를 탕감 받는 등 외채상황은 양호한 것으로 판단됨.
- 2009년 3월 쿠데타를 통해 라졸리나 과도정부가 수립된 이후 정치적인 혼란이 지속되고 있으며, 주요 국제기구로부터의 원조지원 동결, SADC 및 아프리카연합 회원자격 박탈 등 국제사회로부터의 압박이 강화되고 있음. 마다가스카르의 경제가 국제사회의 원조에 크게 의존하고 있음을 감안, 내년 중에는 합법적인 정부가 구성될 것으로 전망됨.

선임조사역 장윤수(☎02-3779-6652)
E-mail : ysjang@koreaexim.go.kr